

2022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(HIV) 신규 감염인 전년 대비 약 10% 증가

- 2022년도 HIV/AIDS 신고 현황 연보 발간
- 2022년 HIV 감염인 신고 1,066명, 전년(975명) 대비 9.3% 증가

질병관리청(청장 지영미)은 「2022년 HIV/AIDS 신고 현황 연보」를 통해 지난해 HIV 감염인 발생현황을 발표하였다.

2011년부터 매년 발간한 이 연보는 2022년 한 해 동안 신고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(HIV) 감염인* 신고현황, 후천성면역결핍증(AIDS) 환자** 현황, HIV 감염인 사망자 현황 등과 함께 1985년 이후 연도별 통계를 수록하고 있다.

- * (HIV 감염인)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(Human Immunodeficiency Virus; HIV)에 감염된 사람
- ** (AIDS 환자) HIV에 감염된 후 면역체계가 손상되어 기회감염 등이 나타난 사람(AIDS;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)

2022년 HIV/AIDS 신고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2022년도에 새롭게 신고된 HIV 감염인은 1,066명으로 전년(975명) 대비 9.3%(91명) 증가하였다.

국적별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825명(77.4%), 외국인 241명(22.6%)이며, 전체 신규 HIV 감염인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.

* ('19년) 217명(17.7%) → ('20년) 198명(19.5%) → ('21년) 202명(20.7%) → ('22년) 241명(22.6%)

성별로는 남자 984명(92.3%), 여자 82명(7.7%)으로 대부분 남성에서 발생하였으며, 연령별로는 30대가 352명(34.9%)로 가장 많고, 이어서 20대 293명(31.5%), 40대 148명(16.5%) 순으로 20~30대 젊은층이 전체 신규 HIV 감염인의 66.4%를 차지하고 있다.

HIV 감염인 신고는 병·의원에서 761명(71.4%)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, 보건소는 206명(19.3%), 그 밖의 기관(교정시설, 병무청, 혈액원 등)은 99명(9.3%)을 신고하였다.

감염경로*는 성(性) 접촉이 57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99.1%를 차지하며, 이 중 동성 간 성 접촉 응답은 348명(60.3%)이다.

* 내국인 신규 HIV 감염인 중 역학조사에 응답한 사람(582명)을 기준으로 조사함.

2022년 말 기준, 우리 국민 생존 HIV 감염인*은 15,880명으로, 전년(15,197명) 대비 683명(4.5%) 증가하였고, 이 중 60세 이상 HIV 감염인은 2,927명(18.5%)으로 매년 그 비중이 증가**하고 있다.

* (HIV 생존 감염인) 내국인 HIV 누적 감염인 중 사망자를 제외하고 생존하고 있는 감염인

** (60대 이상 비율) ('19년) 11.1% → ('20년) 11.7% → ('21년) 12.4% → ('22년) 18.5%

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“에이즈는 치료제 개발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해진 만성 감염질환인만큼 국가 정책도 예방 및 조기 발견·치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”고 밝히고,

“에이즈 퇴치를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을 피하고, 감염이 의심이 되는 경우 신속하게 검사받는 것이 중요한 예방책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
「2022년 HIV/AIDS 신고현황 연보」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누리집* 내 ‘발간자료 → 감시연보’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.

* 누리집 안내 : <http://www.kdca.go.kr/npt>

붙임 1. 2022년 신규 HIV 감염인 신고 현황(요약)

2. (참고) HIV 검사 안내

담당 부서	감염병정책국	책임자	과 장	민선녀	(043-719-7330)
		담당자	연구관	김화수	(043-719-7915)
	연구사		김선자	(043-719-7917)	
	공무직		김고운	(043-719-7335)	
	에이즈관리과				

(단위: 명,%)

구분		전체	비율	내국인	외국인
계		1,066	100	825 (77.4)	241 (22.6)
성별	남자	984	92.3	790	194
	여자	82	7.7	35	47
연령	0-9세	0	0.0	0	0
	10대	13	1.2	12	1
	20대	336	31.5	257	79
	30대	372	34.9	275	97
	40대	175	16.4	126	49
	50대	96	9.0	88	8
	60대	55	5.2	49	6
	70세 이상	19	1.1	18	1
신고기관	병·의원	761	71.4	567	194
	보건소	206	19.3	179	27
	기타	99	9.3	79	20

☞ 자세한 통계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누리집 <http://www.kdca.go.kr/npt> 내 ‘발간자료’ → 감시연보에서 열람 가능

에이즈 상담센터 🔍
☎ 1599-8105
🌐 aids114.or.kr
질병관리청

의심 말고 안심검사

에이즈, 증상만으로 알 수 없어
HIV 검사로 확인!

감염 의심일로부터

약 4주



감염 의심일로부터

HIV 검사 방법

- 📅 검사의 정확성을 위해 **감염 의심일로부터 약 4주 경** 선별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.
- 🏥 **병, 의원 및 보건소**에서 가능하며, 보건소에서는 **무료 익명 검사**가 가능합니다.
- 🧪 감염이 의심되는 날로부터 약 4주 경 받은 검사 결과가 **음성**일 경우, **효소면역시정법(ELISA)**은 감염 의심일로부터 6주 이후, 그 외 **검사법은 12주 이후 재검사를** 권고하며, HIV 감염 진단은 **선별검사**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에 **한해 확인 검사**를 시행합니다.



감염 의심일로부터

빠른 검사의 필요성

- ✔️ 빠른 치료로 건강할 수 가능
- ✔️ 타인에 대한 감염 예방
- ✔️ 막연한 불안감 해소



감염

발행일 - 2022.10.20.